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서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추진현황 조사 및 대책

2017.12.08.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1. 조사배경

o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시급 수준임.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은 이들의 임금 인상과 직결됨. 2018년 최저시급 인상 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예상되는 월급과 급여인상액은 아래와 같음.

근무형태	주간휴게시간	야간휴게시간	2017년 월 최저급여	2018년 월 최저급여	급여인상액
24시간 격일 제	2	4	1,967,958원	2,290,375원	322,417원
	2	5	1,820,361원	2,118,596원	298,235원
	3	5	1,721,963원	2,004,078원	282,115원
	3	6	1,574,336원	1,832,300원	257,964원
	4	5	1,623,565원	1,889,559원	265,994원
	4	6	1,475,968원	1,717,781원	241,813원
	5	5	1,525,167원	1,775,040원	249,874원

### ※ 계산방법

1. 일 임금액 = 임금지급 기준시간(야간은 1.5배) \* 최저시급
2. 월 임금액 = 일 임금액 \* 365일 /12월 /2일(격일제)

o 즉, 2018년도에 최저시급 인상 시 보통 일 휴게시간 수에 따라 25~30여 만 원 정도 월급이 인상됨.

o 반면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축을 선택하거나 휴게시간 늘리기 등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음. 그럴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은 해고위협에 직면하거나 사실상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o 강서구청은 지난 6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통해 강서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한 바 있고, 9월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11월 한 달간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원축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 조사결과

### 1) 통계

o 조사기간 : 11월 6일 ~ 11월 30일

o 조사대상 : 강서구 내 아파트 단지 175개

o 조사담당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이하 센터) 상담노무사 2인, 센터 교육상담팀 1인, 청년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4인

o 결과 : 175개의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 중 조사에 응해준 곳은 138곳임. 나머지는 설문을 거절하거나 오랜 시간 부재중이었음. 138곳 중 현원이 모두 내년 고용 확정된 곳은 9곳에 불과함. 감원이 확정된 곳은 2곳.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경비노동자들이 12월말 입주자대표회의 때 결정될 사항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함.

#### <설문결과>

구분	전체	무응답	응답	인원감축	현행	미정
수	175	37	138	2	9	127

### 2) 감원 예상 현황

(1)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12월말 아파트입주자회의를 통해서 감원여부, 계약연장 여부 등의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음. 답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모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음. 또 '아마도 휴게시간을 늘릴 것 같다', '휴게시간을 늘릴 거란 얘기를 들었다'는 식의 답변이 매우 많았음.

지금까지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은 ①감원 여부는 12월말 돼야 알 수 있다 ②휴게시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정도임(대부분 아파트가 이미 현재 8~9시간의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음).

(2) 강서구의 아파트단지들이 대체로 규모가 작은 편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감원이 진행되어서 현재 경비노동자 수가 4명(A조, B조 포함)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임(138곳 중 81곳). 경비원 수 4인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감원이 예상된다는 곳은 거의 없음. 감원이 확정되었거나 예상된다는 응답을 한 경비노동자분의 경우 대부분 경비노동자 10인 이상의 대형 단지들이었음.

## 3. 대책

### 1) 구청의 역할

(1) 입주자 동대표 교육

- 강서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입주자 동대표 교육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실시와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를 통해서 인원감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

(2) 노동인권아파트 인증사업

- 최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는 아파트에 대해 [노동인권존중 아파트] 인증을 부여하고 구청에서 활용가능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3) 공식 현수막 게시

- 구청명의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아파트경비원 노동인권존중에 대한 현수막 게시.

(4) 중앙정부 지원방안 안내

- 2018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을 적극 홍보

(5) 아파트관리협동조합 설립 유도

-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쓰는 이유는 경비노동자들의 급여, 근무, 4대보험 등의 설계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임. 이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강서구 지역의 아파트의 용역관리를 맡긴다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고용단절에 따른 해고,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많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2)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1) 입주자 동대표 교육 지원

- 구청에서 하는 입주자 동대표 교육시 강사 지원

(2)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노동자 대상 교육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노동자에 대한 교육 사업 진행

(3) 관리사무소와 경비 초소에 근로기준법 상식을 담은 리플렛이나 소책자 배포

-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상식 리플렛이나 소책자 배포

(4) 경비노동자 조직화사업 지원

- 2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센터에서 아침식사 지원 등을 통하여 조직화 유도

(5) 근무형태 변경(격일제 대신 부분 교대제 도입) 캠페인

-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야간 시간에 휴식시간으로 위장하여 사실상의 근로를 부과하는 지금의 24시간 맞교대 방식 대신 8시간 근무씩 1일 3교대를 하는 방식이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 근무 이후 1일 2교대 하는 방식의 캠페인 실시.

(6) 아파트 입주민 설득 캠페인

- 100가구 당 1명의 경비노동자가 있는 경우, 아파트입주민들이 한 달에 1000원, 2000원만 절약하

여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면 정부보조금 경비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더해서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최저시급 수령을 보장해줄 수 있음을 설득하는 캠페인 등의 활동이 가능함.

- 경비노동자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이고, 낙엽 쓸기나 택배 수령, 외부인 출입 저지 등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아파트 내에 여전히 많으므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원이나 휴식시간 늘리기가 능사가 아님을 설득.

#### 4. 결론

o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개선 등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업동설한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로 평가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원과 해고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o 조사대상의 다수가 임금인상 혹은 감원여부 등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비롯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포함된 2018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년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중단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